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5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투자정책과 변영만 과장(2110-5360), 김민정 사무관(2110-5352)

"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견인"

-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'아시아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' 도입-
-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 추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*를 개최하여 「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」을 심의·확정하였음

* 산업부장관(위원장), 외국인투자 유관 17개 중앙부처 장 및 17개 지자체 장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1/4분기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, **올해 투자유치 여건은** 미·일 등 주요국 경기회복 전망 등 **긍정적 요인과** 엔저 등 **부정적 요인이 공존**하고 있어,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**범국가적인 투자유치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**

* '13년 1/4분기 외국인투자는 33.9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44.7% 증가(신고기준)

□ 정부는 **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발전 견인**을 위해, **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**해 나갈 계획임

①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지원

○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고용창출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한 **4대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***하고 **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**

*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, 국내 서플라이체인 상 핵심소재부품,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투자,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

○ 먼저, **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**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R&D센터에 대해 입지, 현금 지원 등 포괄적 패키지를 지원하는 **'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'을 연내에 도입할 계획임**

* ① 입지지원, ② 현금지원, ③ 비자발급 편의제공, ④ 임직원 애로사항 해소, ⑤ 생활 및 정주여건 지원확대 등 포괄적 패키지 지원

○ 국내 경쟁력이 약한 소재부품분야의 해외 강소기업의 집중 유치를 위해 **일본 중심의 부품소재유치시스템을 美·獨의 주요거점도시로 확대하고, 국내 수요대기업과 함께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**할 계획임

* 재팬 데스크 → 독일(뮌헨 데스크), 미국(실리콘밸리 데스크) 설치(하반기)

○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 대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, **글로벌 윈윈 펀드* 를 활용한 매칭투자를 통해 벤처캐피털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**할 계획임

* 글로벌 윈윈 펀드 : 정책금융공사 등과 공동으로 1천억 규모로 조성

○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산업*과 연계한 **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조성**하고, **현지 중소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하려는 일본기업 투자수요의 발굴 및 조기성사**를 적극 유도

* (대경권) 전기전자 부품, (충남권) 자동차부품, (동남권) 화학소재, (호남권) 자동차부품

② 성과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

○ 고용창출이 FDI 유치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, 연간 유치한 **FDI의 고용창출효과를 발표**하고, INVEST KOREA 등 **투자유치 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***을 추진할 계획임

* (現) 투자유치 금액 → (改) 고용창출, 혁신기업 유치규모 등

○ **유치대상 국가·분야별로** 관계부처, 수요대기업 등 국내산업계, 금융기관 등과 함께 **범국가적인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***하는 한편,

* (美) 첨단기술, 신산업분야 / (EU) 첨단 부품소재 및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 / (日) 부품소재 기업 집중 유치 / (中華권) 중국 현지시장 진출형 합작투자

○ 외투기업의 국내경영성과를 바탕으로 **해외모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***하여 지역본부, R&D센터 등 투자 확대로 유도할 계획임

※ [증액투자 유치 모델] : ① 유통망·판매기지 → 생산기지 → 혁신 기지(R&D, 기획 등)로 확대, ② 국내시장 거점 → 아시아 등 지역거점 으로 확대 유도

* ① 국내투자환경 및 맞춤형 인센티브 등 정보 제공, ② 해외본사 CEO의 방한 초청 활동 전개, ③ 고위급이 참여하는 투자사절단 파견, ④ 전담 PM 지정 등

③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

○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FDI 인센티브를 고용창출 및 혁신성 등 **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임**

- 주요 내용은 개별형외투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창출효과를 추가*하고, 단지형외투지역 임대료를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차등감면**하는 한편,

* 例) (現) 투자금액 중심(제조업 3천만불 이상) → (改) 투자금액 + 고용효과
* (現) 제조업 5백만불 이상 75% 감면 등 → (改) 고용효과에 따라 차등 감면

- 비수도권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수요대기업 인근에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을 적극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을 확대할 계획임

* (現) 비수도권, 수도권 임대료 감면수준 동일 → (改) 비수도권 임대료 10% 추가감면

- 지역본부, R&D센터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금지원비의 사용용도를 연구개발비 수요 등으로 확대하였음

○ 향후 상반기 중 유관기관,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'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안'을 수립하고, **하반기부터 관계법령 개정 추진**

④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

○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%에서 50%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**외국인투자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**해 나가는 한편,

○ 포항, 옥포 등 외국인학교 신축 지원,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적극 유치 및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등 **핵심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**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기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**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세를 이어가는** 한편,

○ 양질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, 지방경제 활성화 등 **외국인투자의 실질적인 국민경제 기여도를 제고**하고, **우리나라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도약하는데 기여**할 것으로 기대함

<참고> 2013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주요내용

참 고 2013년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 주요 내용

(1)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지원

□ 우리경제의 고용창출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한 **4대 중점유치분야를 선정**하고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

① **(고용창출형 고부가 서비스 투자)**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R&D센터 유치를 위해 입지, 현금 등 포괄적 패키지 지원방안인 **'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'을 연내 도입**할 계획

- 투자이민수요를 겨냥한 대규모 투자유도를 위해 **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유명 관광특구 및 경자구역으로 확대**하는 방안을 검토

* 例) 새만금 FEZ, 부산·진해 FEZ, 충남 안면도, 평창 올림픽특구 등

② **(핵심 소재·부품기업)** 소재부품분야 강소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**美·獨의 주요 거점도시에 부품소재 유치전담조직을 설치**하여 현행 일본중심의 부품소재 유치시스템을 미국, 독일로 확대

* 재팬 데스크 → 독일(뮌헨 데스크), 미국(실리콘밸리 데스크) 설치(하반기)

- 또한 부품소재 전용공단별 **중점 유치분야를 선정**하고, 인근 **국내 수요대기업과 함께** 구매정책 소개 등 **공동 유치활동을 전개**

③ **(중소·중견기업 성장형 재무적 투자) 해외벤처캐피탈·PEF 대상 유치활동을 전개**하고, 글로벌 윈윈 펀드* 등을 활용하여 해외 벤처캐피털이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**매칭투자를 통해 지원**

* 글로벌 윈윈 펀드 : 정책금융공사 등과 공동으로 1천억 규모로 기조성

④ **(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)**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日·獨 부품소재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**외국기업 전용공단 조성**

* (대경권) 전기전자 부품, (충남권) 자동차부품, (동남권) 화학소재, (호남권) 자동차부품

(2) 성과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

□ 유치대상 국가/분야별로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, 외투기업 해외본사를 상대로 한 증액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할 계획

① **(FDI 성과지표 개편)** 매년 연간 유치한 **총 FDI의** 고용창출효과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FDI 고용실적 관리시스템을 정비*

* ① '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 시스템'을 고용부 고용관련 DB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
② 투자액 외에 예상 고용인원을 기재하도록 외국인투자 신고방식 개편(외촉법 시행규칙 개정, 6월 시행예정)

- 또한, INVEST KOREA 등 투자유치기관의 평가기준을 고용중심으로 개편 추진

* (現) 투자유치 금액 → (改) 고용창출, 혁신기업 유치규모

② **(맞춤형 유치활동)** 국가/분야별로 고위급 순방과 연계한 대규모 국가 IR과 소규모 TFT 활동을 병행하는 Two-Track 유치활동 전개

* 中·美·日·EU 주요 도시별로 국가 IR(총 13회) 및 소규모 TFT 활동(총 100여회)
* (美) 첨단기술, 신산업분야 / (EU) 첨단 부품소재 및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 / (日) 부품소재 기업 집중 유치 / (中華권) 중국 현지시장 진출형 합작투자

- 수요대기업·공기업 등과 함께 신산업·소재부품분야 협력업체 유치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국내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

* 주요업종별 협회, 국내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'투자유치협의회' 개최(하반기)
* 양국 정부·상의 등 民官공동으로 제2회 한미투자포럼 개최(하반기)

③ **(증액투자 유치활동 강화)** 외투기업의 국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**모기업에 대한 유치활동**을 통해 아시아지역본부 등 추가투자로 연계

* 유통망·판매기지 → 생산기지 → 혁신 기지(R&D, 기획 등)로 확대

- 외투기업이 해외본사를 상대로 증액투자 유치활동 시 **IK 투자 전담관 지정 등 전방위 지원**

* ① 국내투자환경 및 맞춤형 인센티브 등 정보 제공, ② 해외본사 CEO의 방한 초청 활동 전개, ③ 고위급이 참여하는 투자사절단 파견 등

(3)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

□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는 고용창출, 혁신역량 확충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행 금액·설비투자 유치 중심의 **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및 혁신역량 중심으로 개편** 추진

① **(입지)**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창출 요건을 추가하고, 단지형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수준을 고용창출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

* 例) (現) 투자금액 중심(제조업 3천만불 이상) → (改) 투자금액 + 고용효과
* (現) 업종,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 → (改) 고용효과에 따라 차등 감면

② **(세제)** 고도기술 조세감면 대상 기술을 품목별 Supply Chain 분석을 통해 **핵심 품목 및 기술 중심으로 재정비**

* (現) 고도기술,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총 632개 기술 → (改) ① 전후방 파급효과를 통한 대규모 고용유발, ②원천기술 특허보유로 국내기술개발이 불가능한 핵심기술 위주

③ **(현금지원) 글로벌기업** 지역본부, R&D센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현금지원비의 사용용도를 연구개발비 수요 등으로 확대

* '현금지원제도 운용요령' 개정(5.1일 개정)

④ **(비수도권 지원)** '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'* 지정 및 단지형외투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확대** 등 비수도권 투자여건 개선

* 최소 지정면적을 기존 단지형외투지역(33만$m^{2)}$의 1/4 이상으로 완화
* 例)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율 : (現) 차별없음 → (改) 비수도권은 10% 추가 감면

⑤ **(사후관리 강화)**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고용실적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, 활용도가 떨어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 투자의 경제성 평가기능을 강화

* 例) INVEST KOREA내 인력 배치를 통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평가, 관리 기능 강화 등

(4)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

□ 외국인투자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·투자환경 개선 및 외투기업의 국내 경영활동 정착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추진

① 투자 확대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공동 추진

- **(지주회사규제)**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%에서 50%로 완화하되,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(산업부, 공정위)

- **(수출신고)**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규모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서 기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

  * 건별 수출신고방식을 유지하되, 수출신고서 기재내용을 대폭 간소화

- **(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)** 국제적인 결제시스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 등 추진 검토

② 원스톱서비스, 지재권, 고용 등 외국인투자 경영환경 개선 지속

- **(원스톱서비스) IK의 민원사무 처리범위에** 현행 공장설립 인허가 및 비자 등 11개 직접처리 사무에서 **현금지원·조세감면 신청, 기술도입계약신고 등 3개 사무를 추가**(산업부)

  *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개정, '13.6월 시행 예정

- **(지재권)**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, 영어 등 외국어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**특허법개정안의 연내 개정 추진**(특허청)

  * 특허법 개정안 입법예고('13.3월) 및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

- **(노사관계)**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을 위해 전담 감독관 지정 및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*(고용부)

  * 고용노동정책 설명회(수시, 고위급) 및 실무급 노무관리 간담회(수시)

- **(인력채용)** 외투기업 구인정보 제공(워크넷),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청년인재-중소 외투기업 간 일자리 매칭 지원*(고용부)

  * 청년인재를 신규채용하는 중소 외투기업에 인턴기간동안 임금의 50%(월 한도 80만원) 지원 및 정규직 전환후 6개월분 임금 추가지원(월 65만원, 7개월 고용유지시)

③ 교육, 의료, 출입국비자, 주거 등 핵심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

- **(교육)** 외국인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포항, 옥포 등 외국인학교 신축 지원,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적극적 유치* 및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을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**

  * 인천(뉴욕주립대 개교, 조지메이슨 대학 유치), 부산(FAU 대학원 개교) 등
  * '13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

- **(의료)** 외국인을 위한 진료 코디네이터 양성 및 외국어 의료안내 확대 등 외국인의 국내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

- **(출입국)**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등 투자이민유형을 다양화하여 외국인에 대한 국내영주자격 부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출입국 편의 도모

  * 영주권 부여하는 투자이민제 : (現) 부동산투자 한정 → (改) 공공펀드투자 등으로 확대
  : 공익사업 펀드 등 자산에 일정금액을 장기 예치한 경우 영주(F-5) 자격 부여

- **(언어환경)** 대중교통, 문화예술행사 등에 영어안내 확대, TV·라디오 등 외국어 방송서비스 확대 및 英文 금융거래 통합 가이드북 발간

  * 영문 버스노선도(행선지판) 설치, 버스내 영어 안내방송 추진 등

④ 인력채용, 동등 경쟁여건 조성 등 외투기업의 국내 경영정착 지원

- 청년인재와 우수 외투기업 간 고용매칭의 장을 마련하여 **외투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**

  * '13년 외투기업 채용박람회(10월중, 서울 COEX) : 120개 기업이 참가하며, 예상채용규모는 약 1,500명 정도

  * 예) 충북(5월) : 한국로버트보쉬, 에이비코리아, 에머슨매니지먼트프로세스社 등 참가
  부산(9월) : 보쉬렉스로스코리아, 솔베이코리아, 콩스버그마리타임社 등 참가

- 옴부즈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과정 내 외투기업에 대한 차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·시정해 나갈 계획

  * 외촉법령 개정('13.6월 시행 예정) : ①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권고시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, ② 규제개선 연차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외투위에 제출